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30(土)	31(日)
	
구름 조금 21/31℃	차차 흐려짐 22/29℃

#### News

-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 ②
- 독서마라톤 1위 대광여고 ③
- 목포어고 하키 2연패 ⑧

#### Books

- 꼭 읽어야 할 독도교과서 ⑭

#### Entertainment

- 광주 출신 가수 김원 ⑧



- 추석 극장가 선점하라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성계 ⑬



우림직업장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 광주비엔날레 온 '천재 예술가' 고든 마타 클락 미망인 제인 크로퍼드 씨



천재 예술가 고든 마타 클락의 미망인 제인 크로퍼드씨가 29일 제7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인 광주시립미술관에 설치된 남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1974년 '건물 쪼개기' 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 뉴저지 잉글우드의 한 주택에서 작업중인 고든 마타 클락의 생전 모습.

## “남편 작품 직접 설치했어요”

### “발상 전환 느낄 수 있을것 아시아 최초 전시 기뻐요”

07  
연세보고  
08

<D-6> “남편의 영혼이 스며있는 작품이 아시아에선 최초로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이게 돼 너무나 행복합니다.” 뉴욕 현대미술계를 이끌었던 천재 예술가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 Clark·미국·1943~1978년)의 미망인 제인 크로퍼드(Jane Crowford·60·미국)씨가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전시장에서 남편의 작품을 직접 설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광주비엔날레의 특성상 그동안 작고 작가의 전시가 흔치 않았고, 창작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 작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유족이 작품 설치를 돕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29일 이번 광주비엔날레 전시 공간인 광주시립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만난 제인 크로퍼드씨는 남편의 작품이 화물 상자에 서 한 점 한 점 나올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

다. 작품들이 2주일에 운송 기간 동안 단 한 점도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전시장에 도착해 그동안의 걱정이 한순간에 풀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듯 작품을 품에 안고 쓰다듬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모든 전시장을 직접 찾아 남편의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예술을 통해 남편과의 지고지순했던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생전의 고든 마타 클락에 대해 “유쾌하고 춤을 잘 추던 멋진 남자였고, 부자들을 위한 건축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술을 선택했다”고 추억했다. 그녀가 고든 마타 클락을 만난 것은 1970년대, ‘은행 건물의 벽을 뚫었다’는 기획안을 들고 온 젊은 고든 마타 클락을 보고 모든 미술인들이 비웃었지만 아트갤러리 큐레이

#### ■ 고든 마타 클락은?

고든 마타 클락은 건물을 반으로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작업을 선보인 작가. 이번에 광주비엔날레에 소개되는 작품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대미술관에서 열린 ‘고든 마타 클락-네가 적도다’전에 출품된 95점, 추정가만 30억원이다.

터였던 그녀가 함께 일하고 제안했던 것이다. 또 남편의 작품에 대해서는 “남편이 건물을 쪼갰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왜 그랬는지를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다. 기존의 사회적 상식과 예술적 편견에 맞서기 위해 건물을 자르고 구멍을 뚫어 찬란한 빛을 감싼 내부에 들여 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광주비엔날레 개막식(9월5일)에 참석해 관람객들에게 남편의 작품을 설명한 뒤 고향으로 되돌아 갈 예정이다.  
/글·사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자연산 전어 먹으러 오세요

### 대풍으로 하루 5~10t씩 잡혀 작년 값 폭락...양식은 포기

올해는 전어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됐다. 전남지역에서 양식 전어가 전혀 출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자연산 풍어에, 양식 전어가 대량 출하되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어민들이 전어 양식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전남지역 횡집이나 식당에서 팔리는 전어는 모두 자연산이라면서 “9월에 접어들면 수요가 늘어 전어 값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 전어 가격이 kg당 2~3천원대로 폭락해 큰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올해는 아예 전어 양식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 등에서 잡히고 있는 자연산 전어는 하루 5~10t에 달하며 kg당 2~3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어잡이 어민들은 올해도 가격 폭락을 우려하고 있으나, 양식 전어가 출하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본수지 적자 환란이후 최대

### 지난달 57억달러...경상수지도 큰 폭 적자

#### 韓銀 국제수지 동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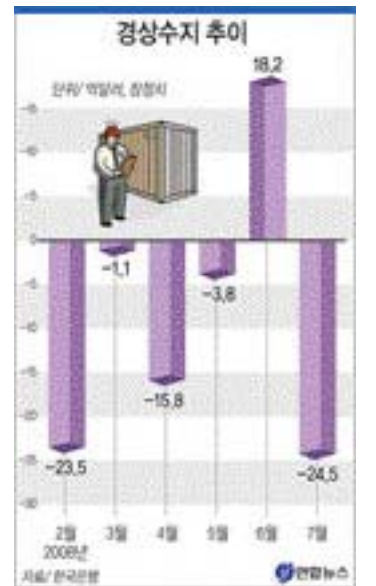
자본수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12월 이후 10년 7개월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경상수지가 한 달만에 또 다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또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6개월째 하락하는 등 국내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자본수지는 57억7천46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97년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7월까지 자본수지 적자규모는 110억790만 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달 경상수지도 24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전환, 지난 1월 27억 5천만 달러에 이어 올들어 2번째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7월까지의 누적 적자 규모도 78억 달러로 증가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상품수지 흑자폭이 6월의 34억 8천만 달러에서 불과 3억 달러로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



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6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선행지수도 전월대비 1.1%포인트 하락, 8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10215300-9318